

# ‘리오프닝’ 中 경제 1% 성장하면 韓 최대 0.5%p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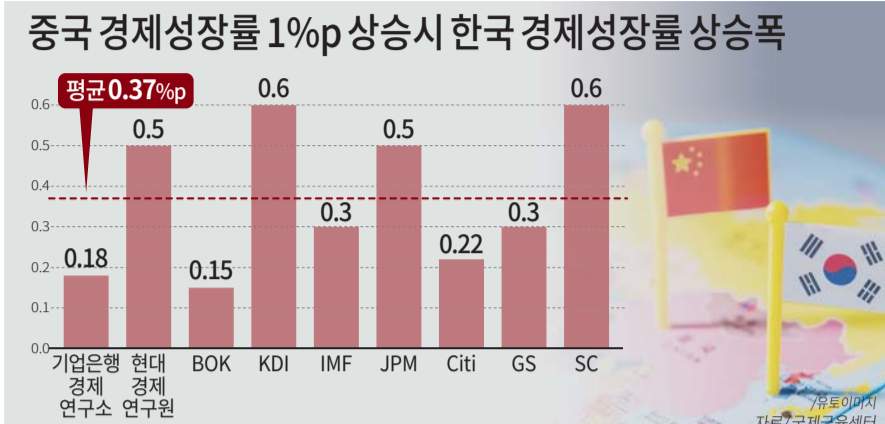
〈경제성장률〉

동반 개선에 대한 기대감 커져 미국경제 성장 견인력 상회 할 것 중국, 경제성장률 5.3%까지 예상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재개)으로 우리 경제도 동반 개선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중국경제가 1%로 성장하면 우리 경제도 최대 0.5%포인트(p)까지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28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주요 기관들은 중국경제의 성장률이 1%p 상승할 경우 상품과 서비스 수요가 동시에 증가하면서 우리경제 성장률은 약 0.2~0.5%p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 경제의 회복이 우리의 수출과 관광 수요를 촉진시키면서 미국경제 성장의 견인력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봤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작년 3.0%에서 올해 5.3%까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다. 미국(0.8%)이나 EU(0.3%)는 물론 신흥국(3.7%) 등을 모두 웃도는 수치다. 특히 리오프닝 이후 소비 등 내수 회복 움직임에 전망치가 작년 말 4.6%에서 상향 조정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경제의 회복이 미국과 유럽 경제의 동시 회복보다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스탠다드차타드(SC)의 경우 중국의 영향이 미국보다 5배 가량 더 큰 것으로

분석했다.

주요 투자은행(IB)들은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상품 수요와 서비스 수요가 동시에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BNP는 우리나라의 수출입과 관광, 공급망 등 중국경제와의 연관성이 여타 신흥국은 물론 아시아 국가를 포함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했다.

우리나라의 대(對)중국 수출은 중국

의 리오프닝에 3% 안팎으로 증가하고,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간접 수출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대중국 수출 비율은 10%로 동남아 국가 평균(8%)보다 높다.

업종별로는 그동안 수요 감소폭이 컸던 화장품과 철강, 석유화학 등의 수혜가 크고, 반도체 등 IT 제품도 하반기부터 점차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국과 밀접하게 연관된 신흥국 등 제 3국가에 대한 수출도 증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아세안 국가로의 수출 비중은 작년 18.3%로 미국(16.1%)과 EU(10.0%)보다 높다.

요우커(중국 관광객)의 방문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경우 촉진할 수 있는 국내 소비 규모는 약 13조~21조원에 달한다. 성장 견인 효과로 보면 수출 못지 않다.

늘어나는 요우커로 인한 GDP 상승 효과는 0.3~0.5%p로 평가됐다. 골드만 삭스는 국내 GDP 상승효과를 0.3%로

분석했지만 한국은행이 분석한 요우커 백만명당 GDP 상승효과 0.08%를 기준으로 할 경우 팬데믹 이전인 600만명 수준으로 요우커가 온다면 GDP 상승 효과는 최대 0.46%에 달할 수 있다.

다만 제약요인도 여전히 있다.

과거와 달리 중국에서 과급력이 큰 부동산 부문의 투자 여력이 축소됐고, 경기부진으로 누적된 재고가 소진되기까지 길게는 6개월까지 걸릴 수 있다. 미중 갈등으로 대중국 수출의 약 33%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이 제한되면 대중 수출 뿐만 아니라 무역수지 손실도 불가피하다. 리오프닝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우려도 있다.

국제금융센터 이지훈 신흥경제부장은 “중국경제 재개방이 우리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 정도가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중국경제 성장이 기회와 위협요인으로 동시에 부각될 수 있음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i@metroseoul.co.kr

Goyang

# 2023

International Horticulture Goyang Korea

## 고양국제꽃박람회

생활 속의 꽃  
Flower in the Life

일산호수공원 Ilsan Lake Park  
2023.4.27-5.8

평민 고양국제꽃박람회  
Goyang International Flower Foundation



중국 하이난성 하이커우에서 고객들이 물건을 사고 있다. /신화(Xinhua/Pu Xiaoxu)

## 수출시장 ‘청신호’ 켜졌다 소형상품 가격 9년래 최고

2월 중순부터 5주 연속으로 상승 반도체, 선박 등 출하량 전년비 ↓

해외 수요가 살아날 기미가 보이면서 중국 수출 시장에 청신호가 켜졌다. 밀려드는 주문에 소형 상품의 수출가격이 9년래 최고치로 치솟았다.

28일 차이에 따르면 이우 소형상품 수출가격 지수는 지난주 107.22로 급등해 201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저장성에 위치한 이우는 세계 도매상품의 허브로 불리는 곳이다. 이우 소상공 도매시장은 7만5000개의 상점이 약 210만 종의 상품을 거래하는 전 세계 최대 규모다.

중국 상무부가 매주 발표하는 이우 소형상품 수출가격 지수는 춘절 이후 이우 시장이 다시 문을 연 2월 중순부터 5주 연속으로 상승했다.

차이신은 “이우는 수출 제품이 많고, 해외 수요에 대한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수출 향방의 바로미터로 간주된다”며 “지수 급등은 중국 수출업자들에게 반가운 신호”라고 평가했다.

통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 매일 평균 약 800대의 컨테이너 트럭이 이우의 세관을 통과했다. 2월과 비교하면 두 배나

많은 수준이다.

다만 특정 상품에 대한 계절적 수요가 지수를 끌어 올린 측면도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의 캠핑 시즌이 시작되면서 관련 제조업체의 주문량이 급증했다. 이우의 캠핑 제품 수출은 6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월 글로벌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PMI)는 경기 확장 및 위축의 경계선인 50까지 올랐다. 중국의 공식 제조업 PMI 조사에서 집계된 신규 수출 주문도 지난달 52.4까지 상승해 거의 2년 만에 처음으로 상승세로 돌아섰다.

중국의 1~2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6.8% 줄었다. 감소세가 이어졌지만 전월 대비 감소폭은 3.1%포인트(p) 축소됐다.

미국을 제외하고는 주요국으로의 수출이 개선됐다. 특히 아세안 국가로의 수출은 9% 늘어 증가폭이 전월 대비 1.5%p 확대됐다.

업종에 따라서도 아직은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자동차 수출은 강세를 유지한 반면 반도체, 선박, 섬유 등의 제품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주문이 감소했다.

/안상미 기자